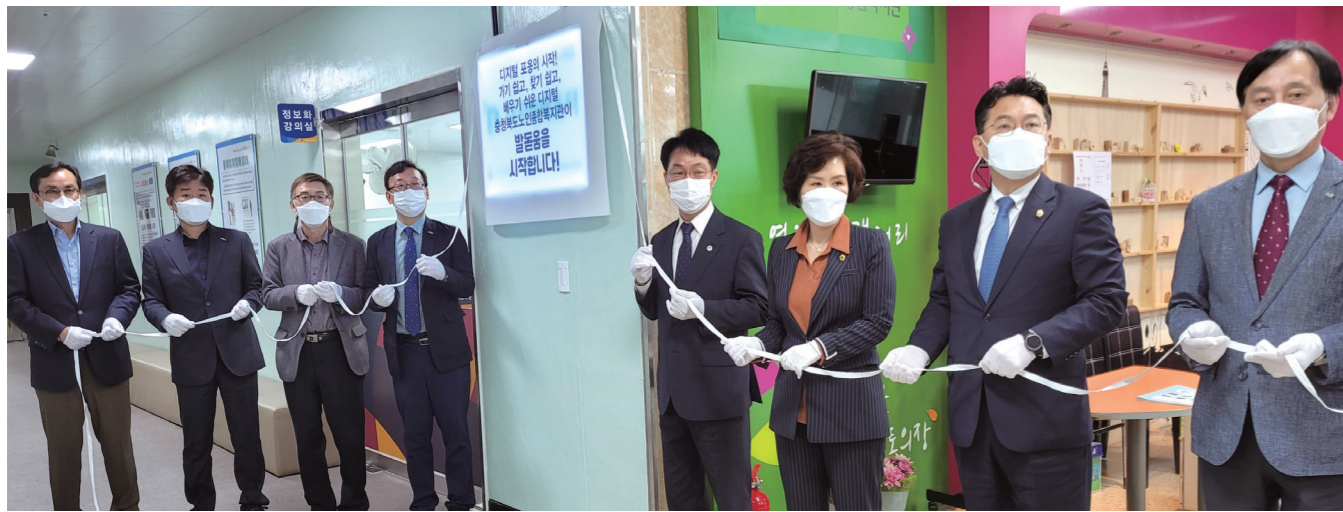


충북디지털배움터 총괄거점센터 마련



지난달 31일 충북디지털배움터 총괄거점센터 현판식에 허창원, 이숙애 도의원, 김영석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내 평생학습센터·노인복지회관 등 디지털배움터 50곳 운영 강사·서포터즈로 지역인재 200명 채용... 도민 디지털교육 실시

충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은 2021년 충북디지털배움터 총괄거점센터로 지정받아 운영함에 따라 충북도내 디지털 소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충북디지털배움터 사업설명회와 교육장 현판식을 지난달 31일 복지당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이 지원하고 충북도가 주관하는 충

북디지털배움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충북디지털배움터 총괄거점센터 사업설명회와 교육장 현판식에는 대면 참여와 비대면 참여로 진행되었고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충북디지털배움터 관계자, 지역 어르신,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시작을 알린 충북디지털배움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은 충북도내 50개의 고령교육장과 에듀버스와 에듀

라이더의 이동형 교육장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디지털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북도 오세동 행정국장은 "이번 자리를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및 언택트(온라인) 문화가 확산에 따른 기본 디지털 활용 역량이 필요한 상황에서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취약계층에게 디지털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력 함양을 지원하고 아동, 청소년, 일반성인에게는 AI, 디지털 코딩 등의 디지털 고급 과정 교육을 지원하여 충북도민이 디지털의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당 관계자는 "충북도와 함께 도민의 포괄적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디지털배움터 사업 모니터링, 전달체계 확보를 통한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디지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력 업무하고자 '시니어 디지털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새로운 노인 사회참여활동 유형을 발굴 및 제시하고 나아가 모두가 행복한 디지털 사회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권리보장·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등 복지 실현·서비스 등 제공
재가노인지원서비스지원위원회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확고히 하는 계기 될 것"

충북재가노인지원서비스지원위원회(회장 박진홍)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가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의 상정 및 의결을 통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재가노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사항,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재가노인지

원서비스가 지역사회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숙애 의원은 "그동안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내 19개 시설이 오랜 기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안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노인들의 희망복지를 실현하는 계기로 발전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홍 충북재가노인지원서비스지원위원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중 집합적 복지가 어려워지면서 1대1 가정방문을 통해 제공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중요도가 크다. 조례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위기적 상황에서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을 확고하게 가져가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충북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확정

'누구나 함께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충북' 건설

충북도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도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과 건강 행태 등 지역 실정을 기초로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 시행계획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

하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장기화 극복을 위한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수립했다.

'누구나 함께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공공보건의료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 사전예방·관리중심의 포괄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건강·안전 지원 환경 구축, 대국민 인식개선과 건강생활 실천, 고위험군 및 선행질환 관

리 강화 등 5대 전략에 32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 전략은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도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 보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을 세부 과제로 보완했다.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포괄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전략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를 세부 과제로 채택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으로의 회복에 나선다.

또한, 건강·안전 지원 환경 구축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반영했고, 대국민 인식개선과 건강생활 실천, 고위험군 및 선행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을 세부 과제로 채택하여 건강검진 고위험군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은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나눔꾸러미' 제작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나눔꾸러미'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 먹거리 등 꾸러미 제작
보은군기초푸드뱅크, 이달 중 60가구 대상 꾸러미 전달 예정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연합봉사단인 나무리회와 스마일 봉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나눔꾸러미' 제작 행사를 16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봉사에 참여하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과 임직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행사에 임했다.

이번 행사는 보은군 내 취약계층 60가구를 대상으로 5가지 먹거리와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사랑의 나눔꾸러미'를 제작하여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보은군기초푸드뱅크로 전달했다.

김영석 회장은 "작지만 따뜻한 정성을 담은 사랑의 나눔꾸러미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보은군 내 푸드뱅크 이용자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봉사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기초푸드뱅크로 전달된 '사랑의 나눔꾸러미'는 이달 중 배분할 예정이다.

충북도, 도내 저소득 에너지 취약가구에 냉·난방기 지원

충북도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해 도내 저소득 에너지 취약가구에 냉·난방기(선풍기, 전기장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고도 냉·난방기가 없거나 고장으로

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 읍면동에서 발굴한 153개 에너지 취약가구이다.

지원품목은 선풍기, 전기장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풍기는 7~8월에 전기장판은 10~11월, 2차례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에너지과(☎043-220-3265) 및 시군 읍면동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형년 충북도 에너지과장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등과 긴

밀한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 하는 저소득 에너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 및 추가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2007년부터 연탄쿠폰도 배부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20주년 기념 포럼」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기반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이 새롭게 개편됩니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신설 코너 안내

<p>사회복지기관, 시설 소개 (“우리 기관을 소개합니다!”) 1면</p>	<p>지역사회공헌인정제기업 소개 1면</p>	<p>신임 기관장(시설장) 소개 8면</p>	<p>사회복지기관, 시설 종사자 동정난(“축하합니다!”) 8면</p>
<p>충북도내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시설을 소개합니다!</p>	<p>충북도내 지역사회 공헌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소개 및 인터뷰 등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p>	<p>사회복지시설(기관)의 새로운 수장을 소개합니다~!</p>	<p>사회복지기관, 시설 종사자의 소식(경사, 수상 등)을 알려드려요!</p>

※ 상기 지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편 사항은 2021년 7월호(제267호)부터 적용됩니다.
충북사회복지신문에 게재를 원하는 코너가 있는 도내 사회복지기관, 시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초등 '청주특수학교' 설립 본격화

충북교육청, 특수학교 과밀 해소 목표... 지난 22일 첫 삽 396억원 투입·27학급 규모... 2023년 3월 개교 목표 중·고등은 청주해원학교서... "교육 취약계층 지원 기대"

충북교육청이 청주 율랑택지 지구에 설립하는 (가칭)청주특수학교' 건립공사가 22일 첫 삽을 떴다. 충북교육청은 청주해원학교 과대과밀을 해소하고 발달 단계 장애 아동 전문 교육을 위해 유·초등 과정 특수학교인 (가

칭)청주특수학교를 이날 착공했다. 청주특수학교는 청주해원학교의 학급·학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한정된 교육시설로 보통교실·직업교육실 등의 부족함에 따라 설립을 추진했다. 학교와 학부모의 개선 요구도

이어져 청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등 해결방안이 필요했다. 청주시 청원구 율랑동 택지개발지구 약 9400㎡ 터에 396억원을 들여 지상 3층, 27학급(유 3학급, 초 24학급)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적장애·정서장애 아동 학생 156명을 배치해 2023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청주특수학교 신설로 발달 단계 장애 학생에 적합한 유·초등 과정 운영은 청주특수학교에서 담당하고, 중·고등학교, 전공과 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은 청주해원학교에서 담당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청주특수학교 설립은 현 정부 국정과제와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에 부합한 학교급별 특성화 교육이 가능한 학교모델"이라며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지 택지개발지구 학교를 설립해 장애 학생들의 학습여건 향상과 장애 학생과 가족 모두 존중받고 있다는 사회적 환경을 체감하게 하는 등 실질적 교육 취약계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음성군·음성교육지원청·음성어린이집연합회·굿네이버스 충북지부가 지난달 31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음성군, 아동권리 증진 위해 뭉쳤다

군·교육지원청·어린이집연합회·굿네이버스 등 맞손 아동 권리 교육 정례화·연령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음성군 등 4개 기관·단체가 아동권리 교육사업에 손을 맞잡았다. 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음성교육지원청,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음성군지회, 굿네이버스 충북지부와 아동권리 교육사업 업무협약을 지난달 31일 서면으로 진행했다. 군은 음성교육지원청, 음성어

린이집연합회와 협의해 지역의 모든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들이 아동권리교육을 받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군 공직자와 아동시설 종사자, 드림스타트 부모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하고 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굿네이버스 충북지부는 전문 강사를 파견해 아동이 위협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교육과 참여 활동으로 아동권리교육 등 연령별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위기 상황 가정의 아동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군 시책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교육현장에서 아동 인권 존중 문화 형성에 이번 협약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역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장기요양 이동지원 시범사업 추진

진천군, 장기요양 이동지원 시범사업 추진



진천군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 3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천군은 9일 군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가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 등을 이용할 때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며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차량 이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말까지 군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차량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등이다. 희망하는 주민은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043-534-5558·5758)로 문의·예약하면 된다. 송석호 군 주민복지과장은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 통해 대상 어르신들의 안전한 외출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노인 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위촉

충주시, 노인 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위촉



충주시는 15일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노인들의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등을 위한 노인 인권지킴이 위촉식을 가졌다.

충주시는 15일 중앙합회회의실에서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노인들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 등을 위한 노인 인권지킴이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은 인권지킴이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예방, 노인 인권,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위촉된 노인 인권지킴이는 지역주민 대표, 노인 관련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인권지킴이는 배정된 시설에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제천시, 치매환자 가정에 '홈캠' 무상지원

한 가구당 기본 2대씩 제공

제천시는 이달부터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 홈캠을 무상으로 설치 지원한다고 밝혔다. 홈캠 지원은 치매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한 가구당 2대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가정 환경에 따라 1대까지 추가 설치도 가능하다.

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해마다 50가정씩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은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독거노인, 부부치매가정, 노인부부 세대 등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세대에 우선 지원한다. 홈캠은 가정에서 사용 중인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사고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치매환자로 고통 받는 분들이 본 지원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외 실종위험 방지를 위한 인식표 배부와 경찰청 지원사업 등 치매환자를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단양군보건소 "안전하게 출산하세요"

임산부 대상 아기용품 등 구성 '건강 출산 꾸러미' 배부



단양군보건소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응원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지원 하는 '건강 출산 꾸러미'.

군민건강 지킴이 단양군보건소가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에 제약이 많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을 응원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건강 출산 꾸러미'를 지원한다. 이번 건강 출산 꾸러미는 임신부 배지, 마스크, 철분제, 엽산제, 아기용품 등 7가지 물품으로 구성됐다. 등록된 임산부에게 우선 지원되며 추후 군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하면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임신부 등록은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양군보건소는 이외에도 출산 가정의 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향후 임산부를 위한 태교 프로그램도 비대면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최소 3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정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최소 30일 이전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병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달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 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옥천군 나눔 상징 '행복나눔마켓' 탈바꿈

나눔냉장고 새단장... 생필품 14개 참여기관·후원사 협약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전하며 나눔과 기부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나눔냉장고가 지원물품을 확대해 행복나눔마켓으로 재오픈한다.

옥천군은 지난 4월 옥천통합복지센터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나눔 냉장고를 행복나눔마켓으로 재 오픈하고, 식료품뿐만 아니라 생필품까지 후원을 받아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난 9일 옥천통합복지센터에서 옥천지역자활센터,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등 14개 참여기관 및 후원사와 행복나눔마켓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운영



옥천군 김재중 군수는 행복나눔마켓을 위해 관내 14개 참여기관과 후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하고 있다.

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군은 냉장고3대, 냉동고 3대, 진열장 5개소, 기타 후원식품, 물품을 비치하며 확대운영을 준비했다.

현재 나눔냉장고 6대에는 지역 식품회사에서 기부한 한우 사골곰탕, 육개장, 돈까스, 떡국떡, 누룽지, 쌀국수, 갈비탕, 석류즙과 육가공업체 삼겹살 및 목살, 그리고 생필품, 음료, 제과, 라면이 구비되어 있어 식품이 필요한 이웃

을 기다리고 있다. 채워짐과 비워짐을 반복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전하고 있는 행복나눔마켓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운영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1회 1만원 상당의 식품과 생필품을 월 2회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

현재 1일 평균 20명 정도가 방문해 행복나눔마켓을 이용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이용객들을 위해 읍면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은 한 끼 식사나 생활에 필요한 용품 수급 등을 해결할 수 있고, 정장부·자치단체 등의 관리에서 빠진 위기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도 하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보은군-유관기관 탈북민 정착 지원 협약

군-민간단체로 확대 추진 보호·정착 위해 적극 협조

보은군이 지난 18일 관내 유관기관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상혁 군수, 황선영 보은군새마을회 회장, 최종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보은지구협의회 회장, 김용우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은경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로 확대해 추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과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에 최



보은군이 지난 18일 관내 유관기관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지역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 등이다.

정상혁 군수는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

해서는 지자체 혼자만이 아닌 관내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북한 이탈주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종예방·조기발견... 옥천 치매걱정 '뚝'

군치매안심센터, 약국 등 13곳 '치매안심등불' 지정 운영

옥천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13곳을 치매안심등불로 지정 운영한다.

센터는 올해 약국, 마트, 경로당 뿐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자율방범대 등을 치매안심등불로 확대 지정하고 치매환자 실종 시 협조체제를 가동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가를 도울 계획이다.

올해 청성면과 청사면의 면사

무소·파출소·자율방범대, 우리약국, 미도마트, 군서면 월전리 경로당 등 9곳을 치매안심등불로 추가 지정했다.

센터는 앞서 2019년 이원면 이원슈퍼, 안남면 배바우슈퍼, 2020년 옥천읍 가화현대·다산금빛 경로당을 지정한 바 있다.

치매안심등불은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을 돕고 배회하는 환자가 발견되면 임시 보호 후 경찰서에



옥천군치매안심센터가 청성파출소를 치매안심등불로 지정하고 있다.

신고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돕는다.

치매 관련 리플릿을 주위에 전달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치매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센터는 리플릿과 치매관련 정보

를 지역에 적극 제공해 치매안심등불을 확대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등불이 더 환하게 켜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괴산군, 취약계층 슬레이트 철거 전액 지원

지붕개량 지원사업 지원 강화

괴산군이 슬레이트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강화에 나선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노후 되면 석

면비산이 발생해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이에 군은 최근 5년간 단계적으로 총 30억여 원을 들여 총 1138동에 달하는 슬레이트를 철거해왔다.

올해는 1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 총 235동에 대해 주택 슬레

이트 철거(최대 344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200㎡이하 전액 지원), 지붕개량(최대 600만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 지원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군은 최근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에 대한 군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군민 건강을 위해서도 처리

가 시급한 만큼 향후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전수조사와 장기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의 피해 예방과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동군, 자가학습 프로그램 운영

전국 최초 지역TV방송과 연계 '청춘 영동 홈런' 안방학습

영동군은 전국 최초로 지역 TV방송과 연계한 홈런(home-learning)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홈런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군내 거주하는 장애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활성

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와 독서 문화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꼼꼼히 준비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레인보우 무지개 감방 만들기 요리프로그램 등

9개 강좌로 운영될 예정이며 학습별로 키트를 제공해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강좌는 충북HCN 방송을 통해 1주일동안 매일 20~60분 동시 시간대에 방송된다. 방송을 놓치더라도 각 가정마다 편한 시간에 맞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정 유튜브 채널인 '충북영동 TV'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학습별 키트제공은 강좌별 200명 선착순에게 지급 될 예정이며

이달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평생학습관(043-743-9600)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된 학습자에게는 오는 7월 방송 시작 전 평생학습 매니저가 직접 학습키트를 각 가정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평생학습도시 영동군에 걸맞게 다양한 계층 분야별 맞춤형 평생학습사업을 확대하여 군민 모두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을 참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증평복지재단, 청소년복지 위수탁 협약

증평군과 청소년수련관·상담복지센터 운영 체결



증평군이 17일 복지재단과 청소년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은 17일 (재)증평복지재단과 증평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증평군수 집무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홍성열 증평군수와 (재)증평복지재단 이홍식 이사장이 참석해 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약서의 내용은 증평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시설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다.

군은 지난 5월 운영단체를 공개모집해 수탁자선정심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증평복지재단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

군은 복지재단에 하반기 두 시설 운영비로 2억 7838만원을 지원하고,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 운영비는 매년 수탁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운영으로 미래의 주역인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대리 (T.043-234-0840~2)

청주·충주의료원 등 의료시설 대폭 개선

도, 충북도립노인병원 포함 내년까지 645억원 투입 최신장비로 교체... 한단계 높아진 의료서비스 제공

충북도 내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이 대폭 개선된다. 충북도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주·충주의료원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등에 2022년까지 총 645억원을 들여 의료장비와 시설 확충·개선에 나선다. 우선 청주의료원에 55억을 들여 MRI, CT, X-ray, 초음파진단기 등의 진단장비와 재활치료 장비 등 총 31종 80여대의 의료

장비를 최신사양으로 교체해 진단과 치료의 질을 높인다. 또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100억을 투입해 노후화된 건강검진센터를 확충한다. 총 72억이 투입되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도 202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도내 장애아동의 체계적인 재활을 도울 예정이다. 충주의료원은 북부권의 취약한 필수의료분야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총 57억을 투입하는 심

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공사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총 91억원이 투입되는 재활 및 호스피스병동 증축 공사도 내년까지 마무리해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생활로의 조기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22억을 들여 심장초음파진단기, C-arm촬영기, 환자모니터링장치 등 26종 140여대의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음압설비가 구축된 호흡기 전담 외래환경 조성, 음압격리방실 확충 등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충북도립노인요양병원은 준

공된 지 20년(2001년 준공)이 경과돼 시설과 장비가 노후된 점을 고려해 총 36억원을 들여 x-ray, 구급차, 환자용 침대, 생화학자동분석기 등을 신규로 구입하고 병동 리모델링과 병실별 화장실 설치, 냉난방 설비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김용호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청주·충주의료원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이 시설·장비 보강과 의료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의료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한 단계 높아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음성군과 국제라이온스협회356-D(충북)지구에서는 장애인 가정을 위해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 이동세탁차량을 전달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성김·나눔’ 실천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 이동세탁차량 전달·식료품 기탁

음성군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총재 원종태), 국제라이온스협회356-D(충북)지구 6구역(부총재 박종학)은 음성군 장애인복지관(관장 전호찬)에 장애인 이동세탁차량과 식료품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동세탁차량은 군의 군비와 국제라이온스협회356-D(충북)지구의 기탁금을 매칭해 구입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동세탁차량을 이용해 장애인가정에 세탁과 건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어려운 장애인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날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6지역에서는 식료품 65박스를 마련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돼 외출이 불가한 군민들에게 지급될 예

정이다. 원종태 총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이동세탁차량이 필요한 가정에 안락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이동세탁차량과 식료품 지원을 함께해 준 국제라이온스협회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도움 받은 물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충북모금회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 함께 해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자가검사키트 지원 특별모금을 실시한다.

자가검사키트 지원 특별모금 9월까지 지역 욕구 맞춰 진행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영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모금은 ‘우리 충북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이란 슬로건으로 사랑의열매가 전국

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의 일환이다. 충북에서는 지역 욕구에 맞춰 자가검사키트를 위한 특별모금으로 진행된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빠른 일상 회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성금접수는 농협 313-01-148060(충북공동모금회)로 받으며 도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된다.

청주시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추진



청주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들과 보건소 직원들이 15일 청주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구강보건키트를 전달하고 어르신 교육을 진행했다.

‘구강 보건의 날’ 맞아 보건소·청주대 등 민관학 연계 진행

청주시 상당·서원보건소가 민·관·학을 연계해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을 펼친다. 보건소는 76회 구강 보건의 날

을 맞아 구강건강증진 도모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인·장애인 1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한다.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청주대학교, 주택관리공단 충북지사, 청주노인복지센터,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혜화학교, 해원학교 등 지역사회

가 동참해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구강관리교육을 함께 추진한다. 보건소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강관리키트를 장애인용, 일반 노인용, 틀니착용 노인용으로 나눠 제작했다. 청주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PBL(Problem Based Learning) 활동을 통해 보건소의 감수를 받아 구강보조용품 사용법 포스터와 ‘바른덴탈길잡이’ 동영상 7편을 제작했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 등 구강관리교육 내용을 담은 이 동영상은 협력기관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청주시 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청주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청주시가 ‘2021 청년트랙5959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청년 기본법 제정으로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

거가 마련됐으며,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및 당사자로서의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공모전은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 아이디어에 청년들의 투표점수를 합산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 방법은 전자우편(youthdrak@hanmail.net) 또는 청년트랙5959 홈페이지

(www.youthspace5959.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마감일 2021년 7월 31일 24시를 기준으로 제출된 경우에 한해 유효) 시상은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으로, 시상금은 총500만 원으로, 청주페이로 지급된다.

청주교육지원청-청주시장애인복지관 MOU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등 협력체계 구축 공동 협력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달 27일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순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사업 활성화, 전환기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공동 대응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7일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등의 내용으로, 상호 간의 관련 업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청주교육지원청 김영미 교육장

은 “협약을 통한 특수교육 협력체계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폭넓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협약 소감을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럭키백(Lucky Bag&Back)’.

국가유공자를 위한 ‘럭키백’ 지원

충북노인종합복지관, 충북남부보훈지청과 연계

충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은 SK하이닉스 후원으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사업으로 충북남부보훈지청과 연계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럭키백(Lucky Bag&Back)’을 진행중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현재의 대한민국의 토대를 이루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에게 방역키트와 밀키트를 지원하고 있다. 11월 방역키트 지원을 시작으로 7~8월에는 총 3차례의 밀키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 달라지는 노인세대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제상태 및 활동·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 조사
개인 소득 평균 1558만원·경제적 자립성 높아져... 65~69세 경제활동 참여율 55.1% "생계비 마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노인 1만97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생활 환경, 가치관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상태 및 경제 활동

● 경제적 자립성 증가,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노인의 경제 상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평균 개인 연간 소득은 약 1천558만원 정도였다. 2008년 조사의 700만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근로·사업 소득, 사적 연금 소득 등이 크게 향상하며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노인의 소득 가운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이 차지하는 공적 이전소득 비율 2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자식이 주는 용돈 등의 사적 이전소득은 13.9%로 감소세를 보였다.

노인 가구의 27.1%는 부채를 갖고 있었는데 평균 규모가 1천89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 생활을 살펴보면 식비 관련 지출(46.6%) 부담이 가장 컸고 이어 주거관리비 관련 비용(22.3%), 보건 의료비(10.9%) 등이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6.9%로, 3명 중 1명 이상이였다. 65~69세 연령대에서는 경제활동 참여율이 55.1%로 절반을 넘었다.

이들 가운데 농업 종사자가 13.5%,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48.7% 등으로, 이들을 합치면 62.2%나 됐다.

일하는 노인의 73.9%는 현재 일하는 이유로 '생계비 마련'을 꼽았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79.9%)과 독거노인(78.2%)에게서 이러한 답변이 특히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83.8%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고, 절반이 넘는 56.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머무르기를 희망했다.

② 건강 및 기능 상태

● 건강상태 긍정적 변화 및 치매검진 확대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노인의 비율은 49.3%로 2008년 24.4% 응답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한 노인은 19.9%였다. 우울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1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200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2008년 81.3%→2017년 89.5%→2020년 84%다.

평균 1.9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종류별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당뇨병 24.2%, 고지혈증 17.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관절염 16.5%,

요통 및 좌골신경통 10% 등 순이다.

③ 가족·사회적 관계 및 학력

● 노인 단독가구(노인독거·노인부부가구)의 증가

노인들의 가구 형태 등을 분석한 결과 노인 단독가구는 지난 2008년 66.8%에서 2020년 78.2%로 증가했다.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같은 기간 27.6%에서 20.1%로 감소했다.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향후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가구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 생활 향유 등 노인의 자립적 요인에 따라 형성했다는 응답이 62.0%로 지난 2017년 32.7%보다 크게 증가했다.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지, 미혼자녀와 동거하는지에 따라 이유에서 차이를 보였다. 기혼자녀 동거의 경우 노인의 정서적 외로움, 노인의 수발 필요성 등 노인의 필요(48.0%)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미혼자녀 동거의 경우 '같이 사는 게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38.8%)와 자녀에 대한 가사·경제적 지원 등 자녀의 필요(34.0%)에 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와의 왕래·연락은 감소하는 반면, 가까운 친인척 및 친구·이웃과의 연락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족에서 벗어나 다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여가 및 사회활동

● 정보화기기 활용능력 향상

노인들의 37.7%가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 취미·여가활동을 꼽았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25.4%, 친목(단체)활동 19.3%, 종교활동 14.1%, 자원봉사활동 1.7%, 학습활동 0.9% 등의 순이다.

노인의 80.3%가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휴식활동이 57.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취미오락활동(49.8%), 사회 및 기타활동(44.4%), 스포츠참여활동(8.1%), 문화예술참여활동(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이용하는 여가문화시설은 경로당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지난 2011년 노인의 0.4%만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은 현재 노인의 56.4%가 보유하게 됐다. 연령이 낮은 노인이 정보화 기기 사용률 및 활용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제공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74.1%), 일상생활 속 정보화 기기 이용 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⑤ 생활환경

● 가정 내 노인편의 설비 증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선호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 79.8%로 가장 높게 나왔다. 주거형태는 아파트 48.4%, 단독주택 35.3%, 연립·다세대주

택 15.1%, 기타 1.2% 순으로 확인됐다. 노인의 75.6%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며, 19.8%는 가정 내 노인편의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차후 건강할 때 희망 주거지에 대해서도 현재 집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83.8%로 높았다. 56.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였고, 31.3%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노인들의 주된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으로 확인됐다. 노인의 71.2%는 외출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직접 운전하는 노인은 지난 2008년 10.1%에서 2020년 21.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출할 때 경험하는 불편사항으로는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에 따른 불편 경험률이 24.9%로 가장 높게 측정됐다.

⑥ 노후 생활 인식

● 웰다잉을 희망하지만, 장례 위주 준비

노인이 희망하는 장례방법은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67.8%, 매장 선호하는 비율 11.6%로 나타났다. 생애말기 좋은 죽음(웰다잉)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는 생각이 90.6%로 가장 많았다.

노인들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서 반대했다. 하지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사를 사전에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의 실천율은 4.7%에 불과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장례 준비(수의, 묘지, 상조회 등) 79.6%, 자기 결정권에 따른 죽음에 대한 준비 27.4%로 주로 장례와 관련된 비율이 높았다.

⑦ 삶의 만족도

● 경제상태와 건강상태 만족도 증가

노인의 49.6%가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50.5%, 경제상태는 37.4%,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2.6%이며, 배우자 관계는 70.9%, 자녀관계는 73.3%, 친구/지역사회와의 관계는 5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조사 이후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자녀, 지역사회의 관계 만족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2017년 37.1%에서 50.5%로 높아졌으며, 경제상태 만족도는 17년 28.8%에 비해 37.4%로 증가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실태조사는 우리 사회 어르신들의 삶의 변화와 다양한 복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며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단독가구에 대한 돌봄강화,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고령친화 주거환경·웰다잉 실천지원 등에 나서겠다."

또 새롭게 등장하는 노인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정보화 역량 등 증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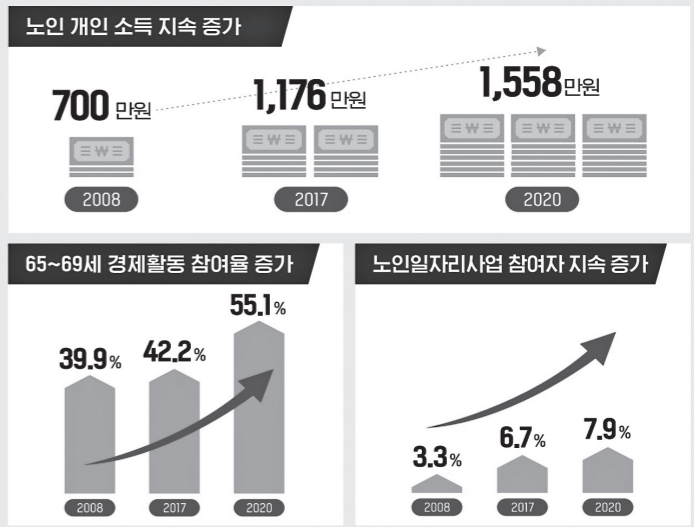
'노인실태조사'는 우리 사회 어르신들의 삶의 변화와 다양한 복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2020년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경제상태, 생활환경 등에 대해 조사

요즘 어르신들의 삶과 가치관, 예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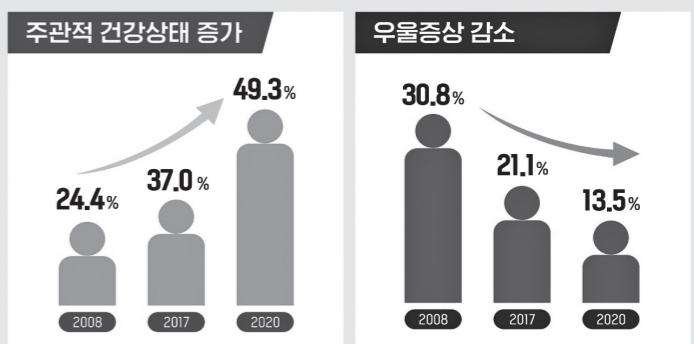
경제활동

노인의 개인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요. 이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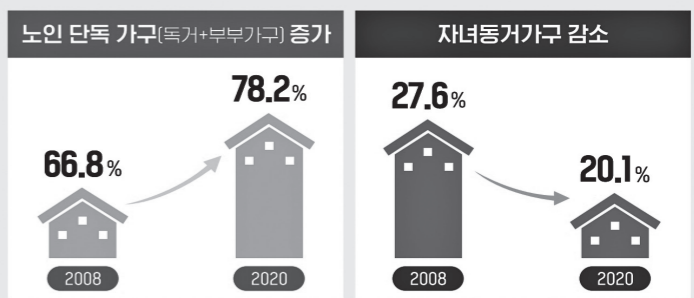
노인 건강상태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 가구 형태 및 주거환경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생활 향유 등 자립적 요인에 따라 단독가구를 형성하였다는 응답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83.8%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함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높은 반대 의사와 함께 좋은죽음(웰다잉)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노인의 90.6% 생애말기 좋은죽음(웰다잉)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는 생각
-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반대

복지광장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보내면서



배 선 희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최근 들어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됐는데, 이는 2019년의 5243건보다 19.4%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간 생활하면서 심신안정도 찾고 시고 추후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환경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노인의 특성상 어떤 변화나 생활환경의 변화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

정신건강

비정형 우울증의 4가지 증상



연 현 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기분이 가라앉은 날이 많았던 4~5월입니다. 함께 일했던 직장동료가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더니...

작은 시설이라 직원이 많지 않기에 많이 의지했던 직원이었기에 퇴사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많이 힘들었죠...

우울증 증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잘 못지 않거나 불면에 시달리는 것 등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정형 우울증의 경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의욕도 없고, 감정도 살아있고 행복해 보여 우울증으로 보기에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내면의 우울감을 갖고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면 우울증'이 가장 대표적인 비정형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일상에서 기분 좋은 자극이 있다면 때로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정형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나열해 보면 첫째, 식욕이나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울감 때문에 식욕이 감소하는 것이 우울증 증상이지만 비정형 우

울증은 오히려 식욕이 증가합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나 불만족을 느낄 때 "정서적 허기"를 느껴 식욕이 폭발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일상에서 기쁨이나 행복 같이 살아있는 감정을 보이면서도 식욕이나 체중의 급증, 과수면, 몸이 무거운 느낌, 대인관계에서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겉으로 볼 때 우울해 보이지 않는다고, 식사를 잘하고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우울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타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많은 정신과전문의들이 말하기를 비정형우울증은 주요 우울장애의 15~30%에 해당된다고 하니 우울증을 갖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흔한 증상입니다.

따라서, 나는 괜찮은지, 나는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야 이제 남아있는 2021년 반을 잘 보낼 수 있겠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조금씩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지역아동센터



김 한 순

청북지역아동센터장

돌봄과 복지의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사업 확대를 위하여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시작하였고 2004년도 정부가 제도화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지역사회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8~19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방과 후 교육, 복지 및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습니다) 감(감사합니다) 사(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쭈뼛쭈뼛하고 쑥스러워 하여 어떤 아이는 고구마! 감자! 사과! 라고 해서 박장대소를 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고맙습니다"를 크게 외치며 좋아한다. 센터에서 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이 있는걸 보면 집보다 더 좋은가? 착각도 하게 된다. 내가 아동센터에서 일하게 된지 15년이 훌쩍 넘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나를 복지사의 길을 가려고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다. 지하철에서 걸인을 만나면 동전이나 천 원짜리 지폐를 놓아야 그날 하루가 뿌듯했고 이러한 불우이웃을 줄이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하며 잠을 잤던 기억이 난다.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감성적으로 단순히 측은지심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는 것은 오류를 낳기 쉽다.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 다르듯 각기 다른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은 개인별, 수준별로 1:1 교육과 정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한 것 보다 아동센터 아이들이 이렇게 밝을 줄은 몰랐더라 일반가정 아이들보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놀랐다고 감탄하는 봉사자들의 목소리에 위안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으로 긴급 돌봄을 실시하

면서 먹거리 제공, 위생관리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은 더 크게 부각되며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문화, 한 부모, 일반가정 등 각각 아동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전문적인 인력이 충족 되어야 한다. 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꿈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삼을 수도 있다. 이주민 아동이 늘고 있는 추세에 7명의 이주민 아동이 있으며 한글에 대한 읽기 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나답게 크는 아이' 교사가 수준별로 학습과 정서지도를 맡고 있으며 중·고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생들이 1:1로 영어와 수학을 지도하고 있다. 11명의 아동이 주3회 레슨을 통해 악기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사리손으로 시작한 바이올린수업은 실력이 향상 되면서 SK하이닉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멤버가 되고 전공자가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CJ장학재단 특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각각 음악가,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 스스로 엄격히 시간 관리를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면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실상은 녹록치만은 않다. 좁은 공간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제약이 따른다. 아동들이 마음껏 활동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지역공공기관을 개방하고 유휴공간을 제공하면 장소 제약의 부담이 적어질 것이다. 또 학교 안에 세워지고 있는 방과 후 돌봄 학교와 동일한 기준을 세워 지역아동센터가 역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아동 돌봄을 위하여 종사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지원의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은 섭섭하고 속상한 일이다. 빠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돌봄과 복지의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 될 필요성을 느낀다. 희생보다 적절하게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아동센터는 동네 한구석에 초라한 시설이지만 매일 매일 아동들이 한결 씩씩 성장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다.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특성을 보완하고 자신만의 행복한 자존감을 갖게 하기 위해 정체가 뒷받침해 주어야 질 높은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손잡아 주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다.

Advertisement for 'Lawyer's New View'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featuring 'Free Lawyer Doctor' (무료 법률호닥터) service. Includes details on support content, service targe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law firm and SSN.

